

2016 새 설계

송 광 운 북구청장

희망·활력 넘치는 경제·복지 1번지로

일자리창출 영향평가제 도입

전남대 후문에 청년센터 구축

충효동 등 생태 도시 윤곽도

“일하는 기쁨으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누구나 행복한 맞춤형 복지로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을 통해 광주 북구를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일자리와 복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섬김과 소통행정으로 희망이 넘쳐나는 2016년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청장은 올해 북구가 추진하고 주요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일자리창출 영향평가제를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초석을 놓겠다는 각오다. 특히 첨단과학 산업단지 내 완공된 ‘광주이노비즈센터’가 앞으로 호남권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북구 경제를 활기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지역 내 전통자원을 사업화하고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인 창조기업 육성과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개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겨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맞춤형 복지 정책에 대해서

도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효사랑 체험학교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북구 마중물 나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다.

또 지난해 개관한 북구 태봉 노인복지관·체육관 등 선진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북구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복지마을로 가꾸겠다는 각오다.

그는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무등산권을 생태·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청장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 중심의 권역별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전남대 후문 대학로에 북구형 청년센터를 구축해 청년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00년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충효동 왕버들군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충효동 일대에 마을의 개성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과 관광상품을 개발해 무등산권을 생태·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가겠다”며 “건국·양산지구에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니터 센터’ 건립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사업들도 계획하고 있다.

우선 도로변에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정원(로드 플라워 가든) 사업을 추진하고 북구만의 특색있는 문화 소품 길을 조성하는 등 도심 속 친환경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주민자치의 결과물인 시화문화마을은 자치와 문화, 그리고 자연이 공존하는 최고의 지역문화 브랜드로 조성하고, 인접한 각하저수지를 문화와 경관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주변 야구의 거리 조성,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광주역 주변 활성화 대책, 아동 등하굣길 안전 사업, 북구청 내 스마트워크 창조공간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한다.

송 청장은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 추진하는 등 소통과 섬김행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구민과 공직자의 세해 소망을 모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충장동 주민센터 신청사 업무 시작

NC백화점 뒤편 새 보금자리

광주시 동구는 충장동주민센터(사진)가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11일부터 동구 충장로4가 NC백화점 뒤편 새 보금자리에

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두 30억 원이 투입된 충장동주민센터는 연면적 871.1㎡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민원실을 비롯한 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강의실, 다목적 회의실, 예비군대 등 행정·교육·문화 공간을 갖췄다.

충장동주민센터 신축 이전은 기존 주민센터의 시설 노후화,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 미설치, 주차 공간부족 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온 데 따른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충장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주민센터 신축을 통해 주민소통



공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충장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식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객센터 육성·상담사 양성’ 기관 공모

광주시, 26일까지

광주시는 2016년도 ‘지역 고객센터산업 육성사업’과 ‘상담사인력양성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을 각각 공모한다.

지역고객센터산업 육성 사업에서는 ▲고객센터 유치기업 발굴 및 유치 ▲수도권 고객센터 DB구축 및 소식지 발간 ▲지역 고객센터 컨설팅 및 방문지원 ▲지역고객센터협의회 운영 지원 ▲고객센터산업 이

미지 개선 및 광주시 고객센터 입지 여건

향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상담사 인력양성 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고객센터 전문상담사 신규 양성(150명 이상) 및 재직상담사 직무향상 교육(250명 이상) ▲전문대학, 특성화고 및 자치구 순회 설명회를 통한 고객센터 인식제고 및 잠재 상담사 발굴 ▲상담사 구인·구직인력 DB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취업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8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 비영리 작업후원기관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강의실, 사무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게시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많은 여성일지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객센터산업 육성을 위해 고객센터 보조금 지원, 상담사 인력양성, 힐링캠프 개최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보현, 통신, 금융 분야 등 총 56개 센터, 8639여 석의 고객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정책과(062-613-3592)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석면 지붕 철거 호당 300만원 지원

광주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 기준 광주지역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총 1만6000여 동 가운데 1만 1000여 동(68%)이 주택으로, 지난해 말까지 주택 700여 동을 철거했다.

시는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로 총 7억2240만원을 확보하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이나 벽체가 슬레이트 주택으로, 기준면적 120㎡ 초과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사업 참여 희망 주택 소유자는 자치구 환경·청소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하게 된다.

시는 이 밖에도 일정 규모 이상 석면

건축물이 철거·멸실될 때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 농어가 자봉 개량에 대부분 사용됐으며, 현재 대부분 내구 연한 30년이 지나 부식되거나 파손돼 바람에 날릴 우려가 높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흉막 등에 붙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자치구별 문의처는 ▲동구청 환경청소과 / 062-608-2506 ▲서구청 청소행정과 / 062-360-7971 ▲남구청 환경생태과 / 062-607-3632 ▲북구청 청소행정과 / 062-410-6520 ▲광산구청 청소행정과 / 062-960-8483.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산구 ‘시내버스 요금 택시’ 확대 운영

‘투게더택시’ 5개 농촌동 대상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올 초부터 ‘투게더택시’(사진)를 5개 농촌동 전제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투게더택시는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농촌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시내버스 요금(1200원)으로 택시를 이용, 광산구 내 원하는 지역까지 오가는 교통복지제도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마을에서 최단거리 버스정류장까지 1km내외 떨어진 본량동 등 7개마을 128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해당 마을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투게더 택시’는 동주민센터가 1인당 2~4매 지급한 이용권으로 탈 수 있다. 요금은 쿠폰과 함께 1200원만 지불하면 나머지 요금은 1만5000원 내에서 광산구가 택시회사에 지불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투게더택시 한 달



이용실적이 70건에 달하는 등 호응이 있었고, 시범 실시 기간 동안 개선 사항을 보완한 만큼 애초 목적에 따라 전체 농촌동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투게더택시는 평동, 임곡동, 동곡동, 삼도동, 본량동 5개 동에 이 동촌 마을(평동) 등 18개 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대상 인원도 시범 실시 128명에서 450여명으로 대폭 늘어 향후 교통약자들의 복지정책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5·18기록관, 2차 구술 증언 접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오는 3월31일까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실에 대해 2차 구술 증언을 접수한다.

구술 신청은 기록관 홈페이지(http://518archives.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구술 내용을 작성,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2-613-8299), 이메일(rn415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연구실(062-613-8291, 8295)로 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4월1일부터 사전 인터뷰와 구술증언을 채록하고, 참여자 중 주요

사재를 모아 앞으로 ‘시민이 겪은 5·18’, ‘우리 가족의 5·18이야기’ 등 시민 경험 사례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한 1차 구술증언에는 1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지만원씨가 ‘44년 광수(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고 왜곡한 사진 속 인물도 포함됐다. 기록관은 앞으로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의 보존·보관뿐만 아니라, 빛을 보지 못한 자료, 일반 시민들의 기억 등을 찾아나서는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급 매”

싸고 좋은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구 7080자리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 ▶보5천만원에 월220만원 임대 보장
 - ▶주인 직매함
- H.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6층, 70평, 즉시 임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시세-1억5천만원, 매매-1억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장기투자 최적
- 시세-1천만원, 매매-500만원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장기투자 최적장소
- 시세-8천만원, 매매-3천 5백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6천만원, 매매-1억1천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